

KOSOVO

이성민, 장혜경(은지, 새일)선교사 선교소식



“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로마서 15:19

양봉 전문가인 쉬켈젠 집사가 꿀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자신의 벌집들을 팔아 은행 빚을 갚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수도에 있는 아들 집에 가서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을 안하고 집에만 있으면 빨리 죽을 것 같다”는 말도 했다. 그의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나도 힘든 마음으로 몇일을 보내야 했다. 그러던 중에 영국 구호단체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쉬켈젠에게 지원을 해 보라고 했다. 명색이 유고슬라비아 시절에 공부를 한 사람이라 지원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 지원을 해 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지원서를 쓰는 일을 도와 주기 위해 만났는데, 출생년도가 52년생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동안 60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으로치면 70세라는 생각에 나이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닐까하고 걱정을 했다. 그런 나의 걱정을 알았는지, 쉬켈젠은 “받아주면 고맙고, 받아주지 않으면 할 수 없지”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은 “옛날 같으면 나이를 속일 수 있을텐데, 지금은 속일 수 없다”라고 했다. 그래서 “왜 속일 수 없냐?”고 했더니,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을 했다.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예배 참석인원이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남은 자들의 신앙은 이렇게 건강함 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 이들과 함께 있음에 감사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코소보를 위한 기도제목

현재 코소보와 세르비아는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코소보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코소보에 들어오는 모든 세르비아 차량에 임시 번호판과 입국세를 부과시킨 것에 대해서 세르비아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있고 국경 근처에 살고 있는 세르비아인들이 도로를 막고 데모를 하느라, 모든 국경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도록 양국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해결책을 도출해 내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 7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안식월을 잘 지내고 다시 코소보로 돌아와 인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동역자님께서 건강하고 평안하셨으면 하고 저희의 소식을 보내드리니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식월 회고

지난 여름 한달 반 가량의 한국 방문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있는 동안 방역단계가 4단계였기에 동역자님들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관계된 일들은 다 좋은 결과들을 얻었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암검사에도 깨끗하였고,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백신을 2차까지 접종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감사는 오래도록 저를 괴롭혀온 허리통증과 소화기능장애가 상당히 개선된 것입니다.

잘 관리하여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희들의 건강 회복과 백신접종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동역자님들께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받은 사랑의 힘으로 이곳에서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줄 압니다.

교회의 변화

안식월 기간 있었던 가장 큰 일이라면 한 부부가 교회를 떠난 일입니다. 그 동안 다녔던 교회들에서 상처를 받았다면서 교회에 가지 않길래, 저희 교회 예배에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 교회에 와서 꽤 오랜 기간 지냈고 교인 등록도 했지만 사역이 바빠지며 자주 주일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 그 영향력에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국에 있는 동안 한번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희 교회를 떠났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와서 보니 실재로는 조금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축이 되어 자신의 집에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 참석과 교회 모임 참석에 별관심이 없던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고 저나 교인들 모르게 다른 교회 목사님의 축복속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붙잡히 여겨 주셨으면 하고, 남은 신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일이의 전학과 가정의 변화

지난 편지에서 새일이의 학교 문제에 대해서 기도 요청을 드렸는데, 결국 전학을 결정하였습니다. 새 학교는 수도에 있는 국제



학교입니다. 지금껏 다니던 학교가 현지인 학교로는 좋은 학교라는 현실 때문에 학교에 문제가 있어도 전학 시킬 곳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수도의 국제 학교는 왕복 4시간의 통학거리와 특히 코로나 기간에 차를 두번 갈아타며 아이

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 든 생각이 ‘학교 근처에 작은 집을 세를 내어 주중에 아내가 새일이를 돌본다면 가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소보에 돌아오자마자 진행하였는데 놀랍게도 입학 과정과 집을 구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진행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현재는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자코바 집에서 인터넷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일이는 7년간 알바니아어로 공부하다가 갑자기 영어로 중 2과정을 공부하게 되어 쉽지 않을 텐데도 너무 좋으면서 대면 수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수업을 잘 따라가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가정은 은지는 독일, 아내와 새일은 수도에서, 저는 자코바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진행되고 있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장선교사와 새일이가 새로운 거주지에 안전하게 지내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주중에 자코바에서 홀로 건강을 관리하며 태권도 사역과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장선교사가 새로운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은지는 저희가 코소보로 돌아오는 날 같이 출국하여, 현재는 전에 머물던 독일인 가정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학교가 시작되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선교지에서 자라 언어 습득의 문제를 경험해 본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독일어로 공부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니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어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아무쪼록 3년동안 성경학교에서 지낼 때, 은지가 자신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하심

이런 가정의 변화와 사역적 변화 가운데 위로가 있었습니다. 새일이가 7년 동안 함께 한 반친구들에게 전학을 간다며 작별 인사를 문자를 통해 했는데, 며칠 후 한 친구에게서 온 문자가 저희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항상 너에게 참 못대게 군것 같아 미안해. 하지만 넌 언제나 예의바랬어. 내가 만난 친구중에서 너 같은 아이는 없는 것 같아 너가 자랑스러워. 너가 새 학교에 가면 그곳에서는 너를 좀 더 존중해주고 잘 대해주는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어. 안녕.” 마치 어린 중학생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우리의 인내를 알아 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부끄럽지만 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독일에 있는 은지도 이 문자를 통해 자신의 코소보에서의 학창시절에 대한 위로를 받았다고 감동하였고 우리 가족 모두는 다시 한번 아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주님의 위로가 풍성한 시간을 보내시는 저와 동역자님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소식을 마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2021년 9월

코소보에서

이성민, 장혜경, 은지 새일 올림

기도제목

1.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고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2. 10월 17일 총선이 아무런 사고 없이 마쳐지고,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3. 교회 신자들의 믿음이 어려운 환경 중에서 오히려 성장하도록
4. 태권도를 배우는 에뜨닉과 한글을 배우는 제니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5. 이선교사는 한국에서 허리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태권도 사역이 허리에 무리를 준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태권도 사역 중단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어서 10월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도록.
6. 주 중에 새일이를 돌봐 줄 도우미를 보내 주시도록

이 메일: smleekosova@yahoo.com, semilee1016@gmail.com

070-8246-1434, 0038344334420(코소보)

GMP: 02-337-7191

카톡: samlee1016

선교 소식: <https://post.naver.com/smleekosova>